

불자 세상보기



정용국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터넷과 웹캠 그리고 동영상 편집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특히 주요 동영상 서비스 업체는 개인 방송의 운영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개인 방송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는 시청자가 유료로 구입한 '별풍선'을 BJ (Broadcasting Jockey)에게 선물하면 이를 일정 비율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여 BJ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결과 '대도서관', '양방', '악어', '김이브'와 같은 유명 BJ들은 역대 연봉 이상의 수입, 지상과 방송 출연은 물론 광고 모델로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개인 방송은 기존의 방송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BJ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

는 '겜방(게임방송)',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먹는 방송)',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방송',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방(공부 방송)', 심지어 조용히 앉아만 있는 '침묵방송',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소방송'까지 콘텐츠의 진화는 끝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큰 투자없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상식과 규범의 허용 범위를 넘는 선정성과 폭력성과 같은 반사회적인 개인 방송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규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벗는 방송(벗방)'이라고 불리는 음란 방송이다. 시청자가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방'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성적인 시청자층이 유료로 접속할 수 있는 '팬방(팬클럽방)'으로 전환하여 보다 수익이 높은 장면을 연출한다. 음란 방송 이외에도 욕설, 폭력, 엽기, 가학 심지어 반인륜적이라고까지 보여지는 방송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 혹은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 방송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현재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 기법,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등의 조항을 개인 방송 사업자나 운영자에게 지킴으로써 강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방송을 방송할 상 방송사업자로 규정한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방송 보다는 통신의 속성이 강한 개인 방송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도권 밖 개인방송 폭발적 확대
수익 노린 선정·폭력방송 많아
현실적인 규제는 자율규제 뿐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비록 법적인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과하는 어렵지만 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동영상 서비스 업체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사업자와의 협회회의를 통해 개인 방송의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BJ 관리 강화,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러한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가 생산 및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TV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BJ 교육을 강화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송을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일부 BJ들이 서비스 업체의 자율규제가 거의 없는 영세 업체로 호스트를 이동하거나 SNS 개인 계정,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해서 방송을 계속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언제나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수밖에 없으며, 문제를 너무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해결책은 실타래처럼 꼬이게 된다. 일단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차근 진행함과 동시에 개인 방송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폐해를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기자 칼럼



노덕현
취재부 기자

1970년대 서울시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된 옛 한전부지를 돌려받기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월 7일 조계종 직할교구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3월 8일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전부지 환수 운동 동참 결의문을 내놓았다. 23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집회가 열린다. 한전부지 환수 문제에 전체 불교계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측이 보유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한전부지 매각은 1969년 12월 제 22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사찰유류재산 처분 승인에 따라 총무원이 총무회의와 중진 및 기관장회의를 통해 매각이 결의되며 진행됐다. 1969년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 토지 매각을 결정하고 1970년 6

조계종의 한전부지 환수와 차가운 여론

월 문공부 매각허가를 받아 토지처분이 진행됐다. 당시 계약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윤태진이라는 서울시공무원이 쓴 가상의 인물이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윤진우 씨의 가명이었다.

여기에 토지 보유자로 매각 반대입장을 밝힌 봉은사는 계약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정부는 계약에 대한 문공부 승인이 난 뒤에야 상공부 종합청사건설위원회를 통해 윤태진을 대신해 계약승계를 진행하며 전면에 등장한다. 군사정권 시절 대규모 토지매입을 위한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교계 밖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주요일간지 뉴스 사이트의 게시관만 보아도 네티즌과 시민들의 환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다. '보상금을 노린 행위', '불교자산을 특정종단 소유로 보는 시각이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봉은사 측에서 반대를 했어도 조계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원과 입법기구인 중앙총회가 결의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여기에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봉은사도 조계종이고, 조계종 총무원과 총회도 조계종이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당시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주체가 봉은사였어야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가해진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져도 문제제기를 한 시점이 너무나 오래됐다는 것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것이다.

한전부지는 토지 매각 이후 1984년 1월 한전이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게 된다. 이 이후로 23년이 지난 2007년에 봉은사 측에서 원 소유자에 환수하라고 요청한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조계종이 환수운동에 나선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조계종이 4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을 새삼 들춰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역사바로잡기라는 명분이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도 알아야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바라는 일이 정권의 강압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라면 시민들에게 이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월 8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봉은사 소유토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당시 종단측 당사자를 포함한 '봉은사 소유토지 강제수용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송보다는 당시 매각 절차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선행과제다. 한전과 서울시,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와 소송도 중요하지만 불교과거사를 정리해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社說

종교의 과도한 선거 개입 안된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공천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함께 분주한 곳이 있으니 바로 개신교계다. 개신교 진보 계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3월 8일 '투표 장! 기독교인 선거대책연대'를 발족했으며,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진영은 일찌감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온도 차는 있지만 공통점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에는 지지를, 부정하는 '반(反) 개신교' 정서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개신교계의 이 같은 운동은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최근 흥력을 치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연성 더민주당 비대위원의 조찬기

도회 논란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종교계도 사회 일원으로 공공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 종교와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것을 공공선으로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개되는 낙선 운동은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현재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을 대표해 선출되는 사람들이다. 좋은 정책을 가진 진정된 일꾼을 뽑는 것이지 특정 종교인을 뽑아서 특정 종교의 전당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 선거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 국회를 특정 종교의 압박이 통용되는 집단으로 만들어서도 안될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신정(神政)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찬불가 지도사 양산, 불음 포교 미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불가는 불자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필요한 포교수단이다. 찬불가가 제작 보급된 지 수십 년, 곡도 수백 개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개신교의 교회음악에 비하면 우리 불교의 찬불가는 대중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 많은 찬불곡들을 불자들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찬불가를 알리는 이들이야 각 사찰의 지휘자와 합창단 정도가 고작이다. 이것도 규모가 큰 사찰이냐 가능하다. 그래서 불자들이 찬불가를 쉽게 접하기가 녹록치 않다.

특히 지휘자 초빙에 제약이 따르는 군법당, 교도소, 복지관 등에서는 찬불가 선율을 들어보기 더욱 힘들다. 이런 열악한 불음 포교 환경으로 난항을 겪는 불교계에 찬불가 지도사 민간자격증 과정이 새

로 생겨 찬불가 대중화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령진 단장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찬불가 지도사 1급과 2급 과정에 대한 최종 등록과정을 마치고 지도사 양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찬불가 포교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를 구상했다.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년전부터이다. 그는 동국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찬불가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민간자격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자격증 등록을 계기로 강 단장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과 고양캠퍼스 평생교육원에 <찬불가 지도사> 및 <찬불가 힐링스쿨> 교육 과정을 개설해 사찰 합창단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다수의 지도사들이 양산돼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찬불가 선율이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열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팀	www.hyunbulnews.com
		쇼핑몰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산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초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음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49재, 천도 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가지계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학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